

21世紀 韓國 教育研究의 課題 및 展望*

車 京 守

(社會教育科)

I. 序 論

1. 教育研究의 概念

교육연구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로는 교육현상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이 사람들의 행복한 행황과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인과관계의 발견과 같은 엄격한 학문적인 것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보의 수집, 사실 존재의 확인, 개념과 일반화의 정립, 이념의 구성,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방법의 모색, 정책의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폭넓게 고찰하려는 것이므로 교육연구의 의미를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2. 教育研究의 機能

이러한 교육연구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변동이 급속하여 교육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합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의 출현으로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지난날에 실시하던 교육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낡은 교육은 오히려 사람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교육연구는 이처럼 교육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교육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청되는 교육의 방향과 형태를 제시하는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용현 교수는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하는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귀중한 시간을 여러차례 할애해 주었다.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 글의 잘못된 점은 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3. 本稿의 目的과 內容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21세기의 한국 교육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과제와 미래의 전망을 서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고의 내용은 (1) 21세기 한국사회변화의 전망 소개, (2) 21세기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에 관한 조사연구의 보고, (3) 과거 교육연구의 증점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반성, (4) 미래 한국 교육연구의 기본방향 제시, (5) 그러한 교육연구의 실천적 과제 검토, (6) 끝으로, 교육연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미래의 전망과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의 필자의 기본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과거의 교육연구는 학업성적 향상, 교육과 국가발전, 입시제도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지향적인 연구가 많았으나, 미래의 한국사회에서는 고도산업화, 국제화, 민주화 등과 함께 비인간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교육, 민족주의와 세계시민 형성에 관한 연구 등 교육이 보다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모아 행복한 개인, 국가의 발전, 세계의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 연구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주로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1991년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에서 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의 목적이 교육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제시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크게 손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II. 21世紀 教育에 대한 韓國人의 期待

먼저 21세기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1991년에 실시한 21세기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중요한 부분만 제시하여 교육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1. 21世紀 韓國 社會變化의 展望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사회의 진전, 민주화 및 자율화의 가속화, 국제관계의 개방화 및 통일문제의 등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비인간화, 환경오염, 계층간의 격차 확대, 향락풍조의 만연 등 역기능적인 현상도 예상된다.

(1) 高度産業化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21세기에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량은 세계적으로 현재 10위 내외이다. 특히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인용 컴퓨터의 대량보급은 한국사회를 정보화사회로 바꾸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소득의 향상, 고학력화, 여가시간의 증대, 고령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과 함께 개인주의적인 풍조, 청소년들의 인내심의 퇴조,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초래할 것이다.

(2) 民主化와 自律化

이와 함께 1987년의 민주화 선언 이후 계속되어 오는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그 실천은 1993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21세기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민주화는 우리의 실정에서 대략 인간해방과 자유에 대한 요구, 자율과 참여에 대한 요구, 권위주의의 배격과 획일화의 거부,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의 불안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급진적인 경우 가치관의 갈등, 진보와 보수세력 사이의 투쟁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3) 國際化 및 開放化

국제관계의 개방화와 통일의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러시아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남북한의 접촉 및 관계개선과 통일문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분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사치성 외래상품의 범람, 향락풍조 등을 경계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2. 評價 및 期待되는 人間像

(1) 社會變化의 方向

이상과 같은 사회변화의 전망이 우리의 교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영국의 번시타인이 사회변화의 추세와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를 “분류”(classification)라고 하고, 한 부분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성의 정도를 “틀”(frame)이라고 했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선명하게 구분되면 분류가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것이다. 또 한 부분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가 크고 자율성이 작으면 틀이 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약한 것이다. 번시타인은 영국은 분류는 강하나 틀은 약한 사회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은 분류와 틀이 모두 강하다고 했고, 미국은 분류와 틀이 모두 약하다고 했다(Bernstein, 1977, 179). 그는 영국에서 최근에 분류와 틀이 모두 약해지고 있으며, 교육도 이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했다. 가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본과 한국은 분류는 약하나 틀은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期待되는 人間像

그러나 번시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사회도 앞으로 분류와 틀이 약한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교육현장에서도 교육행정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인 데에서 자율적인 방향으로, 제시와 명령에서 협동과 자주적인 활동의 관계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의 한국에서 기대되는 교육적 인간상은 (1)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인간, (2) 도덕적인 인간, (3) 민주적인 인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3. 21世紀의 教育에 대한 韓國人의 期待

(1) 調查結果

1991년 서울과 전남 순천의 두 지역에서 학부모 300명과 교사 59명을 대상으로 사회변화의 전망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지를 배부 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중학교 사회과 및 윤리교사 107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방법은 5단계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1에 표시를 하는 순서로 응답하게 했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조사결과의 중요한 부분만을 4개의 표로서 제시한다(차경수 외 4인, 1991, 안상원 외 4인, 1991).

(2) 調查의 意味

이 조사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도덕성, 인간화, 환경문제, 통일,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 등을 다른 것에 비하여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교육과 경제발전, 국제개방화 및 세계시민의식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합리적 지성도 도덕성 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도덕성의 강조는 건전한 교육관으로 볼 수 있으며,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의 강조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기대되는 인간상

〈표 1〉 교육목표

인간상	평점	순위
도덕적 인간	4.58	1
신체의 건강	4.39	2
공동체의식	4.37	3
창조적 인간	4.24	4
민주적 인간	4.17	5
학습하는 인간	4.05	6
지성적 인간	4.05	6
교양·심미적 인간	3.99	8
주체적 인간	3.94	9
생산적 인간	3.80	10
국제적 인간	3.64	11
평균	4.09	

(N = 359, 1991)

〈표 3〉 사회발전과 학교교육의 과제

내용	평점	순위
비인간화극복	4.28	1
전인교육	4.15	2
협동질서의식	4.11	3
시설개선	4.06	4
문제해결력	3.93	5
지구시민의식	3.80	6
평균	4.05	

(N = 359, 1991)

〈표 2〉 국가, 사회발전의 중요내용

내용	평점	순위
환경, 생태계 보호	4.58	1
고도산업사회	4.35	2
민족통일	4.31	3
다원복지사회	4.23	4
경제윤리확립	4.18	5
합리적 경제	4.16	6
정치적 민주화	4.11	7
정보화사회	4.00	8
국제적 개방화	3.77	9
평균	4.18	

(N = 359, 1991)

〈표 4〉 통일교육의 목표

목표	평점	순위
민족의 동질성 회복	4.57	1
분단의 고통과 손실인식	4.18	2
북한의 체제와 실상 인식	4.17	3
자유민주주의 실현	4.07	4
평균	4.24	

(N = 107, 1991)

을 제시한 것과 대체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교육연구나 교육계획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적 가치, 세계시민의식, 합리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21세기의 개방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발전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過去의 反省과 앞으로의 方向

196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사회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 대략 30년간의 교육연구의 중점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過去 教育研究의 重點과 反省

과거에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온 교육연구는 가설적으로 생각해서 대략 성적향상과 국가발전 등 기능주의적이고 특수한 과제지향적인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學業成績 向上에 관한 研究

이 연구는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이 교과 학습과 관련되어 있고, 다시 이것은 대학입시나 취업 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 향상에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지능, 학생의 사회경제적, 또는 가족적 배경, 학생 개인의 기질과 성격,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방법의 종류,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 교사의 지도력과 자질 등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인과관계의 발견을 위해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들 연구는 교과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지적인 영역에 치중함으로써 도덕성의 소홀, 전인적인 인간의 성장 저해, 과열입시준비교육, 학업성적을 둘러싼 과도한 개인주의적인 경쟁을 부채질한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2) 教育과 國家發展 등 現實課題 指向의인 研究

교육과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등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추진된 것 역시 과거 교육연구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강력한 발전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정부의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는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교육”이었다.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앞에 태극기와 함께 액자에 넣어져 걸리기도 했다. 국가 발전과 학생수, 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용의 비율, 교과서, 교육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한국사회가 크게 필요로 했던 시대적 요구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략 교육비용과 학생수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가끔 일정한 경제수준에

서 한계를 초과한 대학생수는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늘날 인구 1만명당 한국의 대학생수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일본과 비슷한 300명 정도의 수준이고, 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는 이들 연구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들 연구는 이처럼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의 공헌을 했지만, 교육이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외부인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入試制度 등 教育制度에 관한 研究

학제와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에 관한 교육정책적인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입시를 위한 준비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너무 과열되어 정상적인 수업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다.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액의 돈을 지불하고 가정에서 과외학습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학제나 입시제도를 고쳐서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제5공화국 정부는 교육개혁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한국교육의 개혁을 위해 연구를 했고, 최근에 입학시험의 부정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했다.

이들 정책연구는 주로 국가의 학력고사와 대학 자체의 고사 실시 여부, 중고등학교의 입학고사제도, 1970년대 후반에 실험대학이라고 불리워졌던 졸업정원제와 계열별 학생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제도,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의 민주화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연구는 교육행정조직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했지만, 교육의 문제가 제도로만 해결되지 않고, 기타의 사회경제적 구조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한국교육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4) 實證的, 數量的 研究

내용면에서 보면 기능주의적인 것이지만 방법면에서 보면 실증적이고 수량적인 분석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가설을 설정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도를 검증함으로써 가설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결론을 내리는 세칭 과학적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연구가 많았던 것은 경험적인 연구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196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행동주의적인 연구방법의 영향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연구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수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정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생생한 관계를 미시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수량에 기울어진 나머지 질적인 연구가 소홀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말하자면 교육연구가 학생들의 생동감있는 모습을 떠나서 좀 메마른 연구가 되기 쉽다.

2. 앞으로의 教育研究의 基本方向

지난날의 과제지향적인 연구 경향과는 달리 앞으로의 교육연구는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연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등을 그 기본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1) 人間教育에 관한 研究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육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연구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간 그 자체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인지적인 능력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도덕성, 심미성, 태도 등의 형성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험성적 향상과 성적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만, 인간의 정의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못했다.

사실상 동양사회는 도덕성과 자연과의 조화적인 생활태도 등 정신적인 문화의 측면에서는 서양사회보다 더 앞섰다고 말해졌지만, 이 부분을 교육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매우 뒤떨어져 왔다. 삶의 목표, 생활방식, 스타일 등과 관련된 도덕성의 함양도 인간교육에서 중요하지만, 입학시험이나 학교수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의 粗暴化나 기계문명 앞에서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도 인간교육은 교육연구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社會體制 및 制度의 正當化와 社會化에 관한 教育의 役割 研究

교육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 크게 보면 사회체제 및 제도의 정당화 기능과 사회화 기능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체제 및 제도의 정당화에서는 규범의 내면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가 대두된다. 또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가치관, 기능 등을 학습 하는 사회화 역시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 가는 현실은 언제나 불평등하고 모순에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체제 및 제도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화는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체제, 제도, 정부 등의 정통성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외면해 왔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기능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연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체제와 제도의 정당화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 우리의 체제와 제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3) 民族主義와 世界市民 形成에 관한 研究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관계가 확대되고, 또 밀접해지고 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지역사회가 된다는 뜻으로 “지구촌”이라는 말도 생겨 나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이것을 실감나게 했다. 자국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국제화가 확대되면 될수록 세계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최근에 짙어지고 있다. 소련연방은 민족에 따라서 분열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서의 내란 역시 민족의 구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 안에서도 보호무역의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시민의 형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시민의 형성을 위한 교육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도외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민족의 통일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세계시민 형성을 지혜있게 조화하는 교육연구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IV. 實踐的 課題

이상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앞으로의 한국의 교육연구는 정의적 행동발달, 교과외의 수업, 환경문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 한국적인 교육이론의 개발, 연구와 교육현장의 수난 극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좀더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1. 人間的 情意的 行動과 文化的 學習에 관한 國際的 協同研究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 등 인지적인 영역의 시험성적에 관한 국제적인 협동연구는 여러차례 있어 왔다. 1970년대에도 OECD에서 학업성적의 성취도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수학과 과학 성적의 성취도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학생들이 도덕성, 성실성, 정직성,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성, 가정이나 이웃, 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학습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학습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태도나 가치관 그 자체의 차이에 대한 조사는 가끔 있었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교육적 과정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왜 어떤 아이는 정직한데,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2. 教科의 授業에 관한 研究

교실에서의 교과와 수업은 실제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의 역할이나 관계, 수업활동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는 교육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앞으로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이론 일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였으나,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의 실험이나 수업과정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에서는 靜岡大學의 馬居政幸 교수와 서울대학의 曹永達 교수가 “韓·日 教室授業의 理解”에 대한 발표를 했다. 馬居政幸 교수는 특히 학교의 수업을 청소년문화의식 및 행동양식과 연결하여 발표를 했다. 교실에서 학생이 손을 들면 교사가 학생의 반응이 만족할 때까지 지적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집단의 규범에 자기를 동조하는 일본인의 의식이 길러진다는 그의 해석은 매우 흥미있었다(曹永達, 1993, 馬居政幸, 1993). 개인이 경쟁적으로 발표를 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미국식 학습모형과 손을 드는 학생을 지적하는 가운데 집단에 동조하게 하는 일본식 수업에 비하면 교사가 지식의 진위를 가리키는 것을 중요임무로 하는 한국의 수업은 사회통합보다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 역시 꼭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3. 環境問題에 대한 教育研究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 등에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온도역류현상(temperature inversion)과 스모그현상, 하천과 토지의 오염, 화학물질의 배출, 방사능오염, 동력에너지의 감소, 지하자원의 감소, 쓰레기문제 등이 인간의 쾌적한 삶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맑고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한채 그저 뿌연기만 한 날씨가 벌써 몇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간 1952년 2주간에 400명이 사망한 런던의 스모그나 1966년 추수감사절 때 168명이 사망한 뉴욕의 스모그와 같은 것이 혹시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연구에서는 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박한 삶의 의식과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이 식탁에서 먹은 후 남아서 버리는 음식은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행처럼 번지는 “뷔페” 식당에 가서 보면 너무 먹어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소화제를 먹고 또 먹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고쳐져야 할 비이성적이고 탐욕적인 식생활문화의 한 형태이다. 환경문제의 배후에는 자연을 착취하는 무한정한 기술개발과 성장중심의 정책, 자연극복의 가치관, 거대주의, 도시주의, 수량주의와 상업주의, 감각적인 쾌락주의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불가피한 것이다.

4. 教育에 있어서의 韓國的 概念과 理論의 開發

교육연구와 실천에서는 개념의 형성과 이론의 정립이 핵심을 구성한다. 한국 학교의 수업모형이나 이론은 가설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수업, 발견학습, 완전학습 등이 이론적으로 소개되고 또 그 실천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그 어느 하나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이론과 모형이 자생적이지 못하고 외래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국의 과열입시준비교육과 과열과외학습의 문화는 동서양의 어느 교육학 교과서의 이론도 그 원인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앵글로 색슨의 후예들은 “현장독립적인 학습문화”(field independe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중심의 발표학습에 적합하지만, 히스패닉, 미국 인디언,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학생들은 “현장 의존적인 學習文化”(field dependent)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앞에서 발표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Levine and Havighurst, 1989, 413). 따라서 이들에게는 협동적인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을 존중하고 협동의 정신이 매우 강한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적합한 교육모형과 이론의 개발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5. 統一에 관한 敎育

교육목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본 것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만 보아오던 과거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공동체의 통일을 위한 교육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요청되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은 휴전선 사이에서 두고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북을 민족공동체의 일부인 동시에 또한 우리와 대립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이중성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급격한 변화보다도 사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研究와 敎育現場의 乖離 克服

교육이론 일반에 관한 연구가 중고등학교에서 각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연구는 연구대로, 교육현장은 현장대로 따로따로 있는 문제점이 한국교육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별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더 심하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는 중고교의 교사들은 교육이론이나 방법의 혁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는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론과 현장, 교육학 전문가와 교과교육학자, 그리고 이들과 현장 교사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의 광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과의 학습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학습이나 고급사고력의 학습, 가치관교육 등이 교육일선의 교사들로부터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 교육연구와 교과교육연구, 교사들을 종합하는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의 討論場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교육연구의 커다란 과제이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현장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핸드북을 만드는 일 등이 요청된다.

V. 展望과 結論

한국의 교육연구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쟁적인 성적향상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방향을 돌려 인간교육과 한국적인 교육 모형과 이론의 개발, 통일교육, 인간의 정의적 행동발달에 관한 국제적 협동연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 것인가, 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서술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未來의 可能性

산업화와 민주화,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서 위에서 시사한 것과 같은 인간교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연구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그 방향대로 추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고도로 기능주의적인 지금까지의 교육연구에 이미 비판이 가해지고, 교육현장을 둘러싼 미시적이고 해석학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오늘의 이 모임도 그러한 것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교육현장의 전통적인 관습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는 미지수이다. 교육현장을 혁신하는 데는 교육연구 이외에도 사회의 전통과 역사, 정치경제적인 여러가지 변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만 가지고 변화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실천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研究 主題를 發掘하기 위한 國際的인 共同協議의 提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적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를 교육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양사회에는 이러한 모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동양사회에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올바른 해답의 제시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문제의 제기에서 발전한다는 문명비평가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협의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가 긴밀해진 오늘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3. 資料의 開發, 整理, 提供을 위한 研究

어떠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동

연구도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면 연구는 연구자의 가설에 따라 얼마든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자료들이 개발에 따라서 연구의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研究費의 確保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비의 확보이다. 어느 나라나 정치가들은 정치에 바빠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연구에 연구비를 잘 준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연구비를 내려고 해도 경제력이 약해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연합기구가 이러한 목적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가 이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教育改革審議會(1987), 教育改革 綜合構想.

馬居政幸(1993), “한국의 比較による 日本の小・中・高等學校の社會科授業の特性—日韓青少年文化と意識・行動様式の比較研究のために—,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主催 세미나 發表資料.

安商元 외 4인(1991), 統一教育政策의 方向에 관한 基礎研究(1991년도 教育部 中央教育審議會 研究報告書).

曹永達(1993), 韓國 高等學校 社會授業의 理解,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세미나 發表資料.

車京守 외 4인(1991), 教育課程 改善을 위한 國家, 社會의 要求 및 展望調査研究(1991年 教育部 研究報告書).

韓國教育學會(編輯, 1974), 教育研究의 諸問題. 서울: 能力開發.

韓國教育開發院(1986), 2000年을 향하여 國家長期發展構想: 教育部門 報告書.

Bernstein, B.(1977), *Class, Codes, and Control*, 2nd 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Vol.3.

Blackledge, D., Hunt, B. (1985).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Education*. London: Croom Helm.

Levine, U.L., Havighurst, R.J.(1989). *Society and Education*, 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Bacharach, S.B. ed.(1990). *Education Reform: Making Sense of It All*.

Boston: Allyn and Bacon.